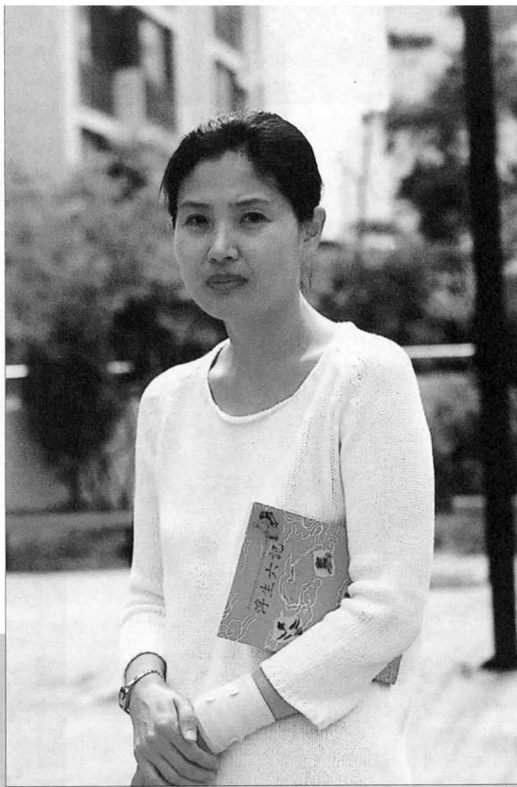


보헤미안적 자유인이 노래한 인생찬가

시인 최영미씨가 뽑은
심복의 《부생육기》



“이 책에는 시·서·화에 대한 당시 선비들의 평가가 실려 있는데, 그 심미안이 여간 아니에요. 자신들만의 개성적인 안목과 기준이 담겨 있어요. 유행에 물려다니는 요즘 세태를 되돌아보게 해요.”

육신에 병마가 찾아들면 마음도 정처 없이 떠돌게 마련이다. 시인 최영미씨(39)가 그랬다. 그는 지난해 양쪽 손목의 인대가 끊어지는 불상사를 당했다. 글씨를 쓰는 것은 물론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작가로서는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불운이 닥쳐왔을 때 그가 읽은 책이 《부생육기(浮生六記)》(심복 지음, 지영재 옮김, 을유문화사)였다.

“친구가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몇번이나 확인전화를 걸어왔어요. 친구의 체근 때문에 읽게 됐는데, 곧 책 읽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죠.”

‘흐르는 인생의 찬가’인 이 책은 청나라의 한 가난한 선비가 세상을 떠난 부인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사랑과 추모의 정을 담았다. 이 책의 기본 정조는 지은이가 인용한 소동파의 시에 잘 드러난다. “삶은 봄날의 꿈처럼 /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심복은 거리낌없이 즐겁게 사는 데서 삶의 기쁨을 찾았죠. 한마디로 보헤미안적 자유인이죠. 가부장적 봉건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다는 점이 신선했어요.”

이 책은 당시의 사회를 엿볼 수 있는 풍속사적 기록으로도 흥미롭다고 최씨는 말한다. 평범한 자연인의 삶과 여행의 기록을 통해 꽃·향·조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풍속과 특산물도 소개된다. 그 가운데 최씨의 눈길을 끈 것은 당대 지식인들의 예술에 대한 안목이었다.

“이 책에는 시·서·화에 대한 당시 선비들의 평가가 실려 있는데, 그 심미안이 여간 아니에요. 자신들만의 개성적인 안목과 기준이 담겨 있어요. 유행에 물려다니는 요즘 세태를 되돌아보게 해요.”

최씨는 이 책을 계기로 뒤늦게 중국 고전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성공회대 사회교육원에서 신영복 교수의 ‘중국고전강좌’를 듣고,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존 K. 페어뱅크 외)을 구입해 읽고 있는 것도 이 책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저의 책읽기는 서양에 치우쳐 있었어요. 앞으로 제 삶과 문학에서 동서양이 균형을 이뤘으면 싶어요. 이 책을 추천해준 친구 덕이죠.”

이 책 뒷면에는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른 〈Gracias a la Vida(삶에 대한 감사)〉의 가사가 적혀 있다. 이 책을 강권한 친구가 적어보낸 것이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선사한 삶에 감사드립니다.” - 박천홍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까지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SAMDUK

삼덕미디어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